

“社會의 要求 파른 內容의 개선을”

선진공업국들의
최근 직업기술교육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공업전문대학의
활성화 방안



장석민
<한국교육개발원
직업기술교육연구실장>

최근 연구된 보고서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리보다 앞서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촉진을 국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경험 하리라고 생각되며, 전문대학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는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의 직업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와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고찰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공업전문대학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선진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의 최근동향

역사적으로 볼 때 직업기술교육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되고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간의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산업사회가 기술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술의 혁신과 고도화에 따라 산업사회가 재편성됨과 동시에 기술인력에 대한 요청이 일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자, 화학, 유전공학 등 일부 새롭게 등장한 고도기술분야에는 기술인력의 결핍이 극심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기존 분야의 기술인력은 그 수요가 급격히 줄거나 없어지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력이 남아도는 가운데 실업이 증가되면서, 일부 새로운 전문기술분야에서는 인력이 극히 부족하게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의 동향은 이와같은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의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기술 교육이 어떻게 산업체 및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그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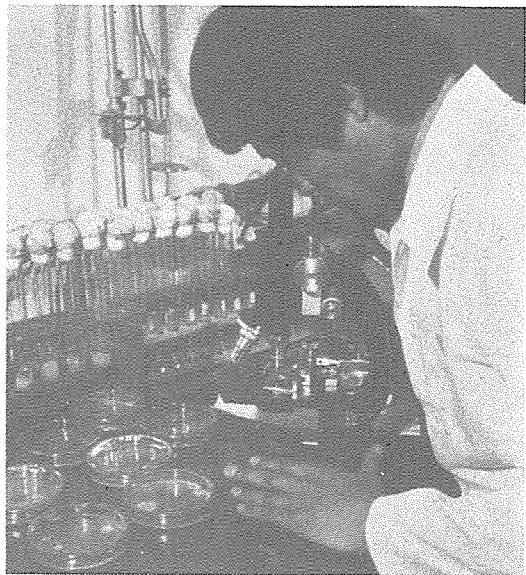
◎ 공통적 기능의 강조 경향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공업고등학교 등은 직업교육의 전문기관이다. 직업교육은 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직업을 원만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을 훈련시키는 교육이다. 취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넓은 의미로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생을 훈련시켜야 한다. 따라서 직업기술교육의 요체는 우선 산업체나 넓게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능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산업체가 학교교육에 요청하는 바는 한 마디로 “적용력이 넓은 공통적 기능”(Transferable Techniques or Skills)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자나 기능공들은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에 적응해 나가야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산업체 또한 마찬가지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체나 기술자가 살아남기 위하여 요청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전이력이 높고 적응력이 높은 기능을 보유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그것이 넓은 기술로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과 돈과 정력만을 낭비하고 취업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



은 바로 그러한 적응력이 높은 공통적 기능을 그 교육과정 속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는 직업군의 개념(Vocational Cluster Concept)을 직업기술교육의 교육과정 구성방법으로 도입하였다. 유사한 직종들을 하나의 군으로 묶고 각 직업군에서 전이력이 높고 공동적인 기능을 추출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 기초 지식과 기능의 강조 경향

선진 공업국가들에서 산업체가 학교 교육에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청은 기초지식과 기능의 훈련을 강조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에 있어서 산업체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내 현직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자의 재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 산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기능공 또는 기술자들이 폭넓은 기초지식과 기능의 훈련없이 특정분야에만 좁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변화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 습득을 위한 재훈련 마저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산업체의 경우는 여러분야의 기술자가 공동으로 전체속에서 부

분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바, 기술자 상호간의 이해 및 효과적인 의사교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폭넓은 기초지식의 결핍과, 심지어 유사인접분야 마저도 이해가 부족하여, 기술자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체가 지적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이유들로 해서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산업체는 폭넓은 기초지식과 기능의 훈련을 학교교육에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산수추리, 읽기, 쓰기, 컴퓨터용어 이해, 측정기능, 일반 과학지식, 의사소통기능, 지도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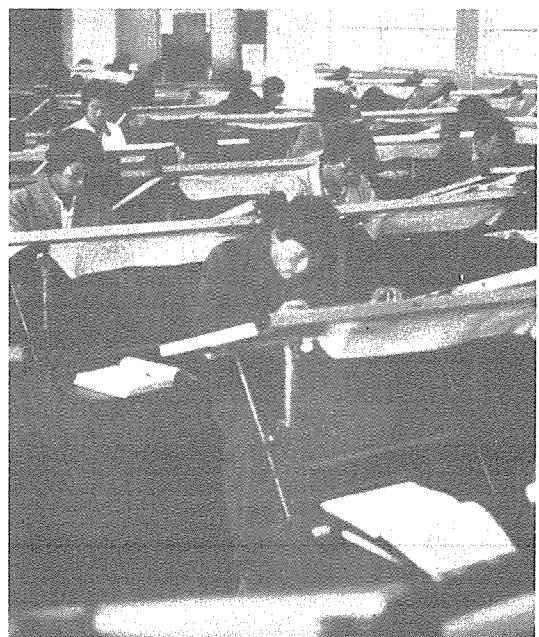
◎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의 강조 경향

공업 선진국가들에 있어서 산업체가 학교교육에 요구하는 또 하나의 요청은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길러 달라는 것이다. 기술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둘째이고, 직업에 대한 성실성 결여,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체의 불평이다. 말하자면 기능의 훈련은 단기간의 사내 훈련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문제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학교교육이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교육은 일과 작업의 세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 첨단기술의 강조 경향

직업기술교육에서 있어서 새로운 경향의 하나는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첨단기술 내용을 신속하게 교육과정 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수요와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의



직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고도기술(High Technology)분야의 내용을 신속하게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의 최근 동향을 살펴 보았다. 그러한 동향은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 문제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동향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업전문 대학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공업전문대학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공업전문대학의 문제는 이 특집의 다른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앞에서 논의한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의 동향에 비추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선진 공업국들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의 동향은 한마디로 산업체 또는 사회의 요구와 직업기술교육 간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공업전문대

학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도 그 근본을 진단해 보면, 산업체 또는 사회의 요구와 전문대학의 교육이 괴리되어 있는 데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결의 요체는 바로 이러한 괴리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괴리를 좁히는 길은 두가지 방향에서 장구될 수 있다. 하나는 산업체 또는 사회의 요구를 전문대학이 받아들여 그 교육과정을 거기로 맞도록 재적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학이 배출하는 기술자를 산업체 또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향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그리고 조화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은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대로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산업체와 사회는 전문대학이 배출하는 기술자를 바르게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업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구가 정확히 진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기타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분야와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술자의 수요는 산업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업 이외에도 사회발전에 따라 기술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를 위한 자영샵(Self-managed shop)을 운영함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잘 수용함으로써 산업체에만 국한되고 있는 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폭넓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체 이외에도 이러한 기술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요구도 교육과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그리고 졸업생들이 그러한 자영샵을 개설할 수 있는 사회적·정책적 지지 기



반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전문대학을 좀더 확고한 기반위에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체 및 사회적 요구를 진단하고 교육과정으로 꾸미는 일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개발, 교재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들의 재훈련도 뒤따라야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인력의 자질을 질러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선진 공업국가들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의 동향에서 지적되었던 원리들이 우리나라 공업전문대학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도 조화롭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폭넓은 기초지식, 응용력 높은 공통기능, 직업과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산업현장에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강조 경향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소망스런 방향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러한 경향이 우리나라 산업체의 구체적인 현실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